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김 주 성**

1. 머리말
2. 행군속도
3. 성곽전과 지상전
4. 지휘 · 연락체계
5. 맺음말

1. 머리말

전쟁과 전투는 비슷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전쟁은 전략에 바탕한 군사작전이라면, 전투는 전술적 차원에 바탕한 무력충돌이다. 즉 전투는 전쟁기간 중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난 무력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투현장을 재현한다는 것은 가변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시키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전투원에게는 생과사를 결정짓는 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지략과 체력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015).

** 전주교대 교수

모두 불사르는 순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순간으로 인문학의 성격이 짙은 역사학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전투보다는 전쟁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즉, 전쟁은 정치외교사를 포함한 장기간의 거대사라고 한다면, 전투는 단기간의 미시사이다. 전쟁은 각국의 정치사를 포함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의 외교사를 주 대상으로 삼아 역사의 진전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투야말로 본래의 군사적 활동이며, 다른 모든 것은 전투를 성립시키게 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¹⁾라고 한 것처럼 하나 하나의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투를 재현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전투 모습도 각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났을 것이다. 오늘날은 각종 무기의 발달로 원거리전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고대의 전투는 근거리 중심이었다. 근거리전투도 지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었을 것이다. 지상전투는 기병전술이 위주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기병전투보다는 보병위주의 攻城戰이 대세를 이루었을 것이다. 무기도 전투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장창은 기병들과 대적하는 보병이 사용하고, 증장기병은 보병의 밀집대형을 깨뜨리는 용도, 경장기병은 도망하는 보병의 추격용으로 이용되었다. 삼국에서는 특히 활이 발달하였다. 성곽 전투 위주의 산악지형에서는 활이 가장 유용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투의 양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연적인 요소가 결정적일 수가 있게 된다. 553년 관산성전투에서 백제 성왕의 죽음 같은 경우이다. 때로는 우수한 무기와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우연한 요소가 전투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관산성전투의 승패만을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이종학 역, 1974, 일조각, 102쪽

이 논문에서는 사료에서 검출 가능한 7세기 전투양상을 재현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세기를 택한 이유는 이때 가장 많은 전투가 행해졌으며, 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투의 진행과정에서 직접 군대가 충돌하기 직전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에 고려되는 행군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이동경로이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공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적정, 구체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군대 수는 얼마인가, 지휘자는 누구이며, 군대의 통솔과 사기는 어느 정도인가, 성곽의 구조는 어떠한가 등을 알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목표에 접근할 것인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가, 어떤 대형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가, 치중부대는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 기병과 보병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이동경로와 함께 행군속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를 어떻게 정했을까. 국경선 부근의 전투에 있어서는 아군의 영토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상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660년 백제와 신라간의 전투에서 신라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662년 신라의 당군을 위한 군량수송 작전에서 김유신은 평양까지의 이동경로를 어떻게 정했을까 등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적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동경로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의 경험, 지리를 잘 아는 포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적정을 탐지한 간첩이 만든 지도, 정찰대와 척후병을 이용한 근접 이동거리 확인 등이 얼른 상상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동을 위해서 행군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호간의 군대가 맞붙었을 때 전투유형은 크게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나눌 수 있다. 성곽전은 공성전과 함께 대개 영성고수(嬰城固守)했다는 수성전을 합쳐서 부르기로 한다. 성곽의 위치가 평지성인 경우보다는

구릉지대에 위치해있을 가능성이 커 성곽전의 경우 거의 산악전의 형태를 띄우게 된다. 성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고 하겠다. 성문의 중요성은 죽죽전에 나오는 대야성전투에 잘 묘사되어 있다. 성곽전에서 지금까지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성밖의 전투도 주목된다. 수성을 위해서 성 밖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진입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시설과 이를 둘러싼 전투가 상정된다.

이런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지휘자의 지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지휘전달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시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한과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과 전투 진영에서의 피아를 구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황산벌전투²⁾, 매소성전투³⁾, 석문 전투⁴⁾나 비록 후삼국시기이지만 일리천전투⁵⁾, 공산전투⁶⁾의 경우 몇 편의 전문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투의 양상을 재현하는 측면보다는 전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당시의 외교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고가 많다. 전투의 구체적인 측면인 행군속도, 진행과정, 지휘·연락체계 등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면서 전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많은 질정을 빈다.

-
- 2) 徐程錫, 「百濟 山城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歷史教育』 91, 2004
 심정보, 「백제사상 황산벌전투와 三營 설치에 대하여」, 『충청학과 충청문화』 10, 2010
- 3) 민덕식, 「買肖城址考」, 『孫寶基博士 停年紀念論叢』, 지식산업사, 1988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安國承, 「買肖城研究」, 『경기향토사학』 2, 전국문화원연합회, 1997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 4) 서영교,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2002
- 5) 鄭景鉉, 「高麗 太祖의 一利川 戰役」, 『한국사연구』 68, 1990
 金甲童, 「高麗太祖 王建과 後百濟 神劍의 전투」, 『滄海朴秉國教授停年論叢』, 1994
 柳永哲, 「一利川戰鬪와 後百濟의 敗亡」, 『大丘史學』 63, 2001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2004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 6)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蔭 戰鬪」, 『軍史』 29, 1994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郷土文化』 9·10合, 郷土文化研究會, 1995

2. 행군속도

전투를 하기위해서는 고대나 현대에서도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얼마만큼의 병력이 이동할 것인가, 어느 통로를 사용할 것인가, 목표는 어디인가, 치중부대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유신은 평양으로 당군에게 식량을 수송해주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庚信既受命 至懸鼓岑之岫寺齋戒 卽靈室閉戶 獨坐焚香 累日夜而後出 私自喜
曰 吾今之行 得不死矣(『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절의 靈室에서 문을 닫고 여러 날 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유신은 작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것에는 병력이동, 행군로, 수송수단, 중간목적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에 구상을 마치고 나서 김유신은 작전성공을 예감하였다.

김유신이 사찰의 영실에 앉아 작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적의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전에 적의 지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二十四年 帝以我太子入朝 遣職方郎中陳大德答勞 大德入境所至城邑 以綵綺厚
餉官守者 曰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導之 遊歷無所不至 由是悉
得其纖曲(『三國史記』 20 영류왕 24년)

당 태종이 645년 고구려침공을 위하여 641년부터 진대덕이 고구려의 지리를 탐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 간에 많은 첩자를 파견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⁷⁾ 신라도 첩자를 이용하여 고구려의

7) 삼국 간의 첩자에 대한 연구는 심심치 않게 진행되어 왔다.

강준식,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 스파이』, 아름다운책, 2004

지형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행군속도이다. 손자병법 軍爭篇에 “그러므로 갑옷을 걸어 올리고 달려, 밤낮을 쉬지 않고, 길을 갑절로 하여 행군 백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세장군은 포로가 되고, 강한 자는 앞서고 약한 자는 뒤져 1/10만 이르게 된다. 50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상장군은 전사하고 1/2만이 이르게 된다. 30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2/3가 이른다. 그러므로 군에 치중이 없으면 곧 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곧 망하며, 저축이 없으면 곧 망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대 병력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30리, 대략 12km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660년 7월 9일 김유신은 황산벌전투에 승리했다. 김유신은 7월 9일 밤을 지새우면서 부대를 정비했을 것이다. 7월 10일 당의 소정방 군대는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군영을 마련하였다. 7월 10일 김유신부대는 황산벌을 출발했을 것이다. 다음 날인 7월 11일 김유신부대는 당의 군영에 도착하였다. 거의 이틀이 걸린 셈이다. 그러니까 황산벌에서 출발한 김유신부대가 사비남의 당 군영까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이다. 사비남이 지금의 어디인지 정확히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석성 부근으로 짐작된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황산벌이 있는 연산에서 석성으로 통하는 길은 노성 혹은 은진을 거치는 두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 모두 60여리이다. 김유신부대가 60여리 길을 이틀에 걸쳐 진군했다면, 하루에 대략 30여리 길을 행군한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행군거리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로 김유신이 661년 12월 10일에 출발하여 마침내 662년 2월 평양의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해

金福順, 「三國의 諜報戰과 僧侶」, 『가산이지관스님화갑논총』 1992

김영수, 「고대 첩자연구 시론」, 『白山學報』 第77號 2007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第62號 2007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疆原考古學研究所論集』 5 1979

8) 노태준 역해, 『손자병법』, 흥신신서, 1983, pp.154~155; 이병도 국역 『三國史記』 p.452에서도 하루 군대의 행군거리를 一宿, 一舍라 하고, 대략 30리로 보았다.

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유신은 2월 1일 장새에 도착하였다. 장새는 오늘의 황해도 수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새에서 평양까지 36,000보라고 하였다. 이 거리를

A-1) 裂起以步騎監輔行，進而言曰，某雖驚蹇，願備行人之數，遂與軍師仇近等十五人，持弓劍走馬，麗人望之，不能遮闕，凡兩日致命於蘇將軍，唐人聞之，喜慰廻書，裂起又兩日廻，庾信嘉其勇，與級滄位，及軍還(『三國史記』 47 열기)

A-2) 渡七重河至蒜壤，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遇賊兵於梨峴，擊殺之，二月一日，庾信等至簞塞，距平壤三萬六千步，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赴唐營 六日至楊陝 庾信遣阿滄良圖·大監仁仙等 致軍糧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 細布三十四 頭髮三十兩 牛黃十九兩 定方得軍糧便罷還(『三國史記』 6 문무왕 2년)

유신의 명을 받은 열기 등 15인이 말을 타고 2월 1일 장새에서 평양으로 먼저 가 소정방에게 식량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장새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36,000보는 대략 47.5km정도가 된다.⁹⁾ 열기는 이 거리를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대략 하루 행군거리는 24km인 60리 정도가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열기는 15인이 궁검만으로 무장하고 말을 달려갔다고 했다. 기껏해야 경기갑 정도였을 것이다. 거의 척 후병 수준으로 이동했다고 보인다. 이들도 하루에 24k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했다. 김유신의 본대는 2월 1일 장새에서 2월 6일 양오(평남 평양시 강동군)에 도착하였다. 열기가 왕래한 시간을 이용하여 본대는 당군 진영으로 계속 진군하였다. 47.5km을 6일에 걸쳐 이동하였다. 본대의 하루 이동 속도는 8km, 즉 20여리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쌀 4천섬, 조 22,250섬의 군량을 싣고 적의 수도 가까이 까지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9) 보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1보는 6척이므로 1척을 고구려척인 22cm로 계산하면 약 1.32m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6000보는 47.5km로 100리가 조금 넘는 거리이다.(역주 『三國史記』 4,791쪽)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행군속도를 김유신이 남천정(이천)에서 출발하여 황산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7년 6월 21일 조에 의하면 무열왕이 태자 법민을 보내 덕적도에 머무르고 있는 소정방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록은 애매한 점이 있다. 법민이 소정방을 만나기 위해 출발한 날이 6월 21일이었는지 아니면 소정방을 만났던 날이 6월 21일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한 무열왕이 곧 이어 소정방을 만나기 위해 법민을 파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아 6월 21일은 법민이 소정방을 만났던 날로 파악하고자 한다. 6월 21일에 소정방을 만나 7월 10일 백제 남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법민은 다시 남천정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알렸다. 법민이 다시 남천정에 도착한 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덕물도에서 남천정까지 대략 이틀 일정으로 보아 6월 23일 경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김유신군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황산벌로 출발한 날짜는 대략 6월 24일경이었다고 추정된다. 남천정에서 황산벌까지 대략 보름정도 걸렸다고 추정된다.¹⁰⁾ 정영호가 추정한 김유신 행군로를 따르면 남천정→삼년산성→산계리토성→장군재→옥천→금산→탄현→황산벌이라는 것이다. 이 행군로를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면 대략 300여km가 나온다. 하루 20여km라는 셈이다. 하루에 대략 50여리를 행군하였던 셈이다.¹¹⁾ 앞의 30여리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적진이 아닌 아군지역이라는 점이다. 특별한 경계없이 행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군대의 행군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지형지물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10) 신라군이 남천정까지 굳이 갔었던 점에 대해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행군로를 상주에서 부여로 상정한 견해도 있다. (이종학, 『삼국사기』의 군사사적 인식 서설, 『한국군사사연구』, 2010, 224~229쪽) 한편으로 일리있는 견해로 생각되지만, 분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며, 후삼국시기 일리천전투의 경우도 왕건의 경우 그대로 전주로 직진하면 되는데 굳이 일리천을 거쳐 황산까지 이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록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11) 정영호도 행군로를 추정할 때 하루 이동거리를 40~50리로 계산하였다.

李世勣進至遼東城下 帝至遼澤 泥淖二百餘里 人馬不可通 將作大匠閻立德 布土作橋 軍不留行度澤東(『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요택 습지 200여 리 길을 대군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지형을 만났을 때 행군의 어려움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바로 적군의 기습공격을 예상하고 항상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수의 별도대가

述等且戰且行至薩水 軍半濟 文德進軍 擊其後軍 殺右屯衛將軍辛世雄 於是 諸軍俱潰不可禁止 (『三國史記』 44 을지문덕)

살수를 도하하고 있을 때 고구려군의 기습을 만나 대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약한 지형에서 대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당 태종도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군할 때 다시 요택을 만나게 되었다. 수의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당 태종은

世勣·道宗將步騎四萬爲殿 至遼東 度遼水 遼澤泥潦車馬不通 命無忌將萬人 翦草填道 水深處 以車爲梁 帝自繫薪 於馬鞞以助役 冬十月帝至蒲溝 駐馬督填道 諸軍度澁錯水 暴風雪 士卒沾濕 多死者 勅燃火於道 以俟之拂(『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후군을 든든하게 마련하고 도하를 시도하였다. 도하를 시도하고 나서도 위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불을 피우는 것을 삼갔다가 폭풍과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우도록 했다는 것이다. 행군상 고약한 지형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군이 지체되고 또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사료이다.

또 행군시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군속도를 더디게 하는 한 요소이다. 612년 평양을 직공한 수군이 회군하면서

見士卒疲弊 不可復戰 又平壤城險固 度難猝拔 遂因其詐而還 述等爲方陣而行 我軍四面鈔擊 述等戰且行(『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6월)

고구려군의 수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방진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이런 경우 행군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었을까는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이에 비해 살수에서 패배한 수군이

九軍將士奔還 一日一夜 至鴨渌水 行四百五十里(『三國史記』 44 을지문덕)

압록강까지 450리를 만 하루만에 도망하였다는 것이다. 지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형을 유지할 수도 없었고 죽자고 북쪽으로 도망하였을 때 450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행군속도는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대형을 갖추고, 치중부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을 상황이다.

3. 성곽전과 지상전

전투의 유형은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별 전투를 사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먼저 성곽전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1) 성곽전

성곽전은 성곽을 공격하기 위한 공성전과 방어를 위한 수성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성을 위한 공격군이 목표로 한 성곽의 어느 지점까지 진군하여 거점을 설치했을까. 이것은 지형과 공성을 위한 무기의 사정거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정되었을 것이다. 사료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612년 수의 우문술이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으며,¹²⁾ 648년 9월 설만철은 박작성 남쪽40리 되

12) 『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5월

는 곳에 진영을 마련하였다.¹³⁾ 660년 당은 백제를 공격할 때 도성으로부터 一舍(하루 이동거리인 대략 30여 리)의 거리를 두고 진영을 쳤으며, 672년 석문전투 직전 백수성전투에서는 당군이 백수성 500보¹⁴⁾ 전방에 진영을 마련하였다.¹⁵⁾ 4개의 예 중에서 2개가 30여 리 전방, 40여 리 전방이 하나, 500보 전방이 하나이다. 대략 30~40여 리 전방에 진영을 마련하여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여진다.

공성전과 수성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인 까닭에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전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물과 식량이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물과 식량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조차 역시 물과 식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물의 중요성은

王然之入尉那巖城固守數旬 豆智曰 漢人謂我巖石之地 無水泉 是以長圍 以待吾人之困 宜取池中鯉魚 包以水草 兼旨酒若干 致犒(중략)於是 漢將謂 城內有水 不可猝拔(『三國史記』 14 대무신왕 11년 7월)

이라 하여 돌로 된 성이라 물이 부족할 것으로 여기고 장기전으로 들어간 한병을 당해내기 어려워 을두지가 잉어를 잡아 바치는 피를 내었다는 것에서 찾아진다. 다음으로 식량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至是爲內應 燒其倉庫 故城中兇懼 恐不能固守(『三國史記』 47 죽죽)

642년 8월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자 검일은 처를 빼앗긴 복수를 위해 대야성내의 창고를 불질렀다는 것이다. 창고에는 곡식과 무기가 쌓여있었을 터인데 이를 불태워버리자 성곽을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661년 5월 9일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13) 『三國史記』 22. 보장왕 6년 9월

14) 앞의 고구려척의 계산을 준용하면 대략 660m이다.

15) 『三國史記』 7. 문무왕 12년 8월

城主冬陘川能激勳少弱 以敵強大之賊 凡二十餘日 然糧盡力疲 至誠告天 忽有大星 落於賊營 又雷雨以震 賊疑懼解(『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성주 동타천이 20여 일 동안 잘 방어하였으나 식량이 떨어지자 하늘의 도움을 얻어 겨우 물리쳤다는 것이다. 물과 식량이 전투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물과 식량을 확보한 다음 성곽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판 다음 굳게 성을 고수했다. 즉 深溝高壘와 嬰城固守했다는 것이다. 한의 침략을 맞은 고구려의 명임답부가 제시한

今漢人千里轉糧 不能持久 若我深溝高壘 清野以待之 彼必不過旬月 饑困而歸 我以勁卒迫之 可以得志 王然之 嬰城固守 漢人攻之不克 士卒饑餓引還(『三國史記』 16 신대왕 8년 11월)

방어책에 잘 드러나 있다.

공성을 위한 첫 단계는 우선 적군의 기세를 죽이고 아군의 사기를 살리기 위한 요란한 기싸움이 있었다.

B-1) 賊高聲唱 曰雖蕞爾小城 兵食俱足 士卒義勇 寧爲死戰 誓不生降 庾信笑曰 窮鳥困獸 猶知自救 此之謂也(『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B-2) 李世勣攻遼東城 晝夜不息旬有二日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噪聲振天地(『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B-1)은 661년 9월 25일 신라군이 백제 부흥군이 웅산성에서 항거하자 이를 함락할 때의 모습이다. 작은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충분해 싸울만 하다고 하여 식량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확인된다. 부흥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가 김유신이 웃으면서 말했다거나 하는 것은 공격하기 전 기싸움의 모

습을 엿볼 수 있다. B-2) 사료에서는 이세적이 요동성을 12일 동안 공격하였으나 함락을 못하고 있을 때에 당 태종이 함세하자 북과 고함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고 한다. 결국 태종의 함세로 새로운 공격을 할테니 빨리 항복하라는 의미의 기싸움인 셈이다.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난 이후에는 당연 해자를 메워 성벽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 태종이 요동성 공격을 본격화하기 위해

帝自將數百騎至遼東城下 見士卒負土填塹 帝分其尤重者 於馬上持之從 官爭負土 置城下 李世勣攻遼東城 晝夜不息 旬有二日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噪聲振天地(『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해자를 메꾸기 위하여 태종이 술선수범하자 시종관들이 다투어 해자를 메우기 위해 흙을 날랐다는 것이다.

해자를 메꾼 다음에는 포차에서 돌을 날려 보냈다. 661년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침공할 때

北漢山城 列拋車飛石 所當陴屋輒壞 城主大舍冬陘川 使人擲鐵蒺藜於城外人馬不能行(『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포차로 돌을 날려 보내니, 돌을 맞은 성곽이 부서졌다는 것이다. 포차의 사정거리는

(李世)勣列砲車 飛大石 過三百步 所當輒潰 吾人積木爲樓 結繩罔 不能拒 以衝車撞陴屋碎之時(『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300보 정도였다. 맞는 것마다 부서질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 방자측에서는 포차의 飛石으로 부서진 곳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마름쇠를 뿌렸다. 그리고 부서진 곳을 목책과 그물로 대신하였다. 앞 사료에 보이는 積木爲樓 結繩罔이 그것이다. 북한산성 전투에서 보이는 安養寺의 창고를 헐어

그 재목을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다 樓櫓를 만들어 굵은 줄로 망을 얹고 牛馬의 가죽이나 솜옷 등속을 걸어 매고 그 안에다 弩砲를 준비하여 지켰다는 것도 좋은 예이다.¹⁶⁾ 또 안시성전투에서 衝車와 돌쇠뇌로써 그 城堞을 파괴하니 城中에서도 따라 木柵을 세워서 빈 곳을 막았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⁷⁾

공자축에서는 부서진 곳으로 성곽을 뚫기 위하여 충차를 동원하여 다시 성곽을 공격하였다. 이런 공격 후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C-1) 南風急 帝遣銳卒登衝竿之末 蕪其西南樓 火延燒城中 因揮將士登城 我軍力戰不克(『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이라 하여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화공을 가하면 적이 불을 끄는 사이에 성곽을 넘어 들어가 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화공을 통한 성곽점령은

C-2)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李宿·謀支·姜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三國史記』 47 필부)

C-3)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 爲四道來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三國史記』 25 개로왕 21년 9월)

이라 하여 성곽공격에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화공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나 바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었다. 화공을 못한 경우에는 충차를 이용하여 성위에서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충차에 올라 탄 극소수 병력만이 가능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곽 높이만큼 흙을 쌓은

16) 『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17) 『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帝遣造布囊百餘萬口 滿貯土 欲積爲魚梁大道 關三十步 高與城齊 使戰士登而攻之 又作八輪樓車 高出於城 夾魚梁道 欲俯射城內(『三國史記』 20 영양왕 24년 4월)

이라는 어랑대도를 만들어 그 곳에서 공격하기도 하였다.¹⁸⁾ 물론 방자라고 마냥 공격만 당했던 것은 아니고 때때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성안에서의 방어는 물론이고, 성 밖으로 나와 공자를 공격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是夜我軍數百人縋城而下 帝聞之 自至城下 召兵急擊 我軍死者數十人 餘軍退走(『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고구려군 수백 명이 밤에 줄을 타고 성곽을 내려왔으나, 태종에게 들켜 수십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당군의 사비성 공격시 태자 효의 아들 문사가 좌우를 거느리고 밧줄에 매달려 성밖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흥미롭다.¹⁹⁾ 여기에서 삼국시대 읍성에는 아직 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⁰⁾ 성곽이 공격을 받을 때 비상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성안과 밖의 연락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이런 공격이 진행된 후 공격군이 성곽을 넘어들어 오게 되면 양측이 백병전을 벌리게 된다. 『三國史記』 47 눌최전에

18) 공성전의 모습을 과장을 섞어 실감있게 표현한 『당유인원기공비』에는 백제부흥군이 유인원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성읍(城邑)을 모두 무너뜨리고 점차 중부(中部)로 들어가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베며, 집들을 무너뜨리고 태워버려서 지나는 곳마다 초토화시켜 남아 있는 것이 없게 하였다. 흉악한 위세가 이미 드러나서 사람들이 모두 위협당해 복종하며 성채를 벌여놓고 영을 늘어세워 놓아 오래 머물러 있는 우리 군대를 공격해서 포위하였다. 운계(雲梯)로 굽어보고 지도(地道)로 환히 들여다보며, 돌과 화살이 유성처럼 떨어지고 비처럼 쏟아지며, 밤낮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아침 저녁으로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 서도...”라고 하였다.

19) 『三國史記』 28 의자왕 20년

20) 암문시설은 주로 산성에 설치된다. 그 설치시기를 대성산성에 16개의 암문이 설치되어 있어, 장수왕대에는 암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출판사, 2009, 609쪽)

奴張弓挾矢 在訥催前 射不虛發 賊懼不能前 有一賊出後 以斧擊訥催 乃仆 奴反 與鬪俱死

이라 하듯이 화살을 이용한 접전이 벌어지다가 결국 칼과 도끼 등의 단거리 무기로 백병전이 벌어지고 성곽은 점령되게 되었다.

공자는 성곽에 깃발을 꽂음으로써 점령을 상징화시켰다. 요동성 함락 이후 백암성 성주 손대음은 스스로 항복을 청하여 성위에 깃발을 세우니

(孫)代音立幟 城中人以爲唐兵已登城 皆從之(『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성안 사람들이 성이 점령된 것으로 알고 모두 손대음을 따랐다고 하였다. 당의 사비성 공격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定方令士超堞 立唐旗幟 泰窘迫開門請命 於是 王及太子孝 與諸城皆降(『三國史記』 28 의자왕 20년)

소정방이 성곽에 깃발을 세우자 왕자 태가 성문을 열고, 다른 성들도 항복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깃발이 성곽에서 나부긴다는 것은 이제 성곽이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지상전

지상전의 예로 우선 황산벌전투를 들 수 있다.

D-1) 階伯 百濟人 仕爲達率 唐顯慶五年庚申 高宗以蘇定方爲神丘道大總管 率師濟海 (중략) 遂盡殺之 至黃山之野 設三營 遇新羅兵將戰(『三國史記』 47, 계백)

D-2) 至唐顯慶五年庚申 王出師 與唐將軍侵百濟 以官昌爲副將 至黃山之野 兩兵相對(중략) 官昌 曰唯 卽上馬橫槍 直擣敵陣 馳殺數人 而彼衆我寡 爲

賊所虜 (『三國史記』 47 관창)

D-3) 秋七月九日 庾信等進軍於黃山之原 百濟將軍階伯擁兵而至 先據嶮 設三營以待 庾信等分軍爲三道 四戰不利 士卒力竭, (『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7년)

D-4) 盤屈 曰謹聞命矣乃入陣力戰死(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7월9일)

D-5) 秋七月至 黃山 之原值百濟將軍 階伯 戰不利 欽春 召子 盤屈 曰爲臣莫若忠爲子莫若孝見危致命忠孝兩全 盤屈 曰唯乃入賊陣力戰死(『三國史記』 47 김영운)

660년 7월 9일 계백이 도착한 곳을 黃山之野(D-1), D-2), 黃山之原(D-3))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관창전에 黃山之野에서 兩兵相對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성곽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양측이 진을 치고 대립했다고 보인다. 양측이 진을 치고 대립했기 때문에 관창이 말을 타고 直擣敵陣할 수 있었다. 반굴 역시 '乃入敵陣'이 가능했었던 것도 지상전이었기 때문이다.²¹⁾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황산벌전투는 지상전이였다.

지상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營을 설치했다. 계백이 3영을 설치한 것을 보고, 김유신도 이에 맞서 군사를 셋으로 나누었다. 이를 3道, 혹은 3軍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영은 단위부대로 구분되었음을 알겠다. 각 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라군이 조천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양산 아래에 영을 구성하였는데

抵百濟之地 營陽山下 欲進攻助川城 百濟人乘夜疾驅 黎明緣壘而入(『三國史記』 47 김흠운)

이라 하여 영의 외측에는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쌓은 '壘'라고 불리는 간단한 시설이 찾아진다. 혹은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깊은 구덩

21)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 『황산벌전투 조명 학술대회』, 2009, 논산문화원 87쪽

이를 파놓은

庾信 時爲中幢幢主(중략)迺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三國史記』 41, 김유신)

'坑'이라고 불리운 시설도 있었다.²²⁾ 사실 누와 갯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갯을 만들기 위해 파여진 흙을 쌓으면 누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누의 존재는 649년 8월 도살성 아래에서 영을 설치했던²³⁾ 김유신의 부대에 서도 찾아진다.

今日必有百濟人來謀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 援軍至(『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위 사료의 堅壁不動의 벽은 바로 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이런 壘와 갯은 공격을 위한 행군도중에 본대를 기다리면서도 마련되었다. 645년 5월 요택을 먼저 건넌 강화왕 도종은 신성과 국내성 보기 4만명과 부딪혔다. 이때 深溝高壘하여 황제 본대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도종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처럼 부대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면 방어를 위한 시설로 누와 갯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와 갯의 안쪽에 각 제대 별로 진을 구성하기 용이한 대형을 갖추면서 숙영시설이나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각 제대별로 지휘소를 갖추었을 것이며, 영의 중앙이나 지휘에 용이한 곳을 택해 총지휘부

22) 옥산서원본이나 정덕본에는 모두 '坑'으로 새겨져 있으나, 문장의 의미를 중시하자면 '坑'이 맞을 것이다. 이병도 교감 『三國史記』에서도 이를 坑으로 판독하였다.

23) 김유신이 영을 설치했던 장소가 도살성의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따라 지상전이였는지 성곽전이였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앞의 사료에서 陽山下라고 되어있듯이 道薩城下的 표현은 도살성의 성안이 아닌 성밖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적인 것은 김유신의 지휘소로 사용된 곳을 幕으로 표현된 점이다. 막이란 임시적인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안이라면 내구적인 건물을 지휘소로 사용했을 것이다.

24) 이 사료의 해석을 이병도는 성벽으로, 정구복 외 역주 『三國史記』에서는 신라본기를 역주한 사람은 성벽으로, 김유신열전을 해석한 사람은 진지로 해석하여 각각 다르다. 필자는 후자, 즉 임시로 구축된 진지의 벽으로 보고자 한다.

도 세워졌을 것이다. 김유신이 649년 8월 은상의 석토 등 7성 공격에 지원군으로 참전했을 때 10여일의 전투를 치른 후 재전투를 위해 도살성 아래에서 주둔하였다. 이때

於是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舉 時有水鳥東飛 過庾信之幕 將士見之 以爲不祥(『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라고 하여 김유신의 장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황산벌 전투에서 관창이 사로잡혀 계백의 앞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에서도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계백의 앞으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계백의 총지휘소 앞으로 끌려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루와 막사의 존재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전투도 있었다. 613년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시 양현감의 반란으로 양제가 철군할 때 요동성의 고구려군이 살펴보니

軍資器械攻具 積如丘山 營壘帳幕 案堵不動(『三國史記』 20 영류왕 24년 4월)

군수품과 무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보루와 지휘소가 예전 그대로 였으나 수군이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는 것이다. 보루와 지휘소가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軍營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겠다.

이렇게 진영을 갖춘 양측은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한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기 전 양측의 장수들이 나와 자기소개를 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일본서기에서 관산성전투 직전 백제의 왕자인 창이 고구려장수와 함께 통성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찾아진다.²⁵⁾ 그 이후 전투가 행해졌을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면 거의 전면전투가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황산벌전투에서 양군은 전면적으로 4번을 싸웠다. 하루에 4번의 전면전투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번의 전투는 대략 한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양측이 대형을 정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25) 『日本書紀』 19, 欽命紀 14년(553) 冬 10월

이런 전면전투 후 정비시간에 반굴이나 관창의 개인적인 무용 전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면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무공을 세우면 무장으로서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 온달이

時後周武帝 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拜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擊大克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중략) 賜爵爲大兄(『三國史記』 45 온달)

후주와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승전으로 이끌자 국왕이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며 대형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상전은 지형이 전투 승패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계백이 10:1의 병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4번의 신라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험한 지형을 선점하고 있었던 지형적 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굴이나 관창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한 신라군의 분기탱천한 공격까지 감당해내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지상전에서는 역시 병력운용, 즉 전술과 진법이 전투의 승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당 태종의 3만의 병력에 여지없이 깨뜨려졌었다. 병력운용이 전투의 승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5만 대군이 3만의 병력에 어찌 그리 힘없이 무너졌는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延壽等獨見 李世勣軍少 勒兵欲戰 帝望見無忌軍塵起 命作鼓角舉旗幟 諸軍鼓噪並進 延壽等懼 欲分兵禦之 而其陣已亂(『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이세적군을 쫓던 고연수 등이 갑자기 장손무기와 태종의 군을 맞게 되어 군진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자 군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군진이 병력운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26) 병력운용으로 군진만큼 중요한 것은 찾을 수 없지만, 한번의 전투 패배가 곧 그 전투의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병력 수보다는 운용이 중요했다는 예로 또 신라와 백제의 아막산성 전투를 들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신라의 甲卒 1천에게 백제의 4만 병력이 전멸하다시피 했다.²⁷⁾ 고대의 전투 승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던 듯싶다. 그리고 단기간에 치러진 전투에서도 승패의 기복이 매우 심하였다. 아막산성전투의 경우 백제의 패색→신라의 패색→신라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현존하는 자료상에 의하는 한 전투 승패의 요인으로 사기만큼 또 중요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유신이 불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방법으로 나이 어린 화랑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병사들의 전투의욕을 북돋아 죽음을 무릅쓴 사생결단의 승부를 강요했던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평지전은 성곽전과는 달리 전면전투가 이루어져 전투가 며칠동안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아니면 이들의 짧은 기간에 승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했기 때문에 군사의 사기와 지형, 병력운용과 진법 등이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지상전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하겠다.

4. 지휘 · 연락체계

전장으로 떠나는 총지휘관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까. 김유신은 고구려의 唐營으로 떠나기 전 국왕으로부터

중국적인 승패로 연결되었다기 보다는 대야성전투와 같이 여러 차례의 승패의 반복으로 전투의 결과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수 등이 대군을 거느리고서도 그렇게 한 차례의 패배로 항복을 청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27)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 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 大言曰 吾嘗受教於師 曰士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與小將箒項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三國史記』 27 무왕 3년 8월)

將行王以手書 告庾信 出疆之後 賞罰專之可也 (『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이라 하여 상벌권을 부여받았다. 그 권한에 의해 전장에서 열기와 구근에게 각각 급찬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권한부여는 전장으로 떠나는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하겠다.²⁸⁾ 지휘관은 이 상벌권으로 지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도 한계가 있었다. 벌을 주는 것은 즉결처분권이 주어졌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었지만, 상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평양성 부근의 소정방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연락병 임무를 수행한 열기와 구근에게 김유신은

時裂起以步騎監輔行進 裂起又兩日迴(중략) 庾信嘉其勇 與級滄位(『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급찬을 사여해주었다. 김유신은 귀환 후 왕에게 다시

及軍還 庾信告王曰 裂起·仇近天下之勇士也 臣以便宜 許位級滄 而未副功勞 願加位沙滄 王曰沙滄之秩 不亦過乎 庾信再拜曰 爵祿公器 所以酬功 何謂過乎 王允之(『三國史記』 47 열전 7 裂起)

열기와 구근에게 사찬을 수여해주도록 건의하였다. 이로 보아 전장의 김유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권한은 급찬을 사여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찬 이상은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장에 나가는 대장군에게 국왕이 편의적인 상벌의 권한(편의종사권)을

28) 이를 중국사에서는 便宜從事權이라고 하였다. 편의종사권에 대한 언급은 김한규, 『남북국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와 고대 한국의 막부제』,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1985, 159~160쪽 참조. 신라 장군은 전시 출정의 상황에서 용병·작전 등의 일반적인 지휘권과 더불어 상벌의 권한까지 내포된 군령권을 행사하는 존재이다. (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1997, 302쪽)

주었다면, 예하부대의 장군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을까. 이를 적기 해준 기록은 없지만, 단편적인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보도록 하자.

唐高宗大怒 遣師來討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宜屯聚 徒自勞耳 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 乘其未陣擊之 吾人大敗 將軍曉川義文等死之(『三國史記』 43 김유신 하)

이 기록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장창당이 독자적으로 진영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해된다. 장창당을 비롯한 예하부대의 진영을 갖추는 것은 대장군의 의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장창당의 전과에 고무되어 다른 예하부대가 대장군의 명령없이 각기 진영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석문전투에서 죽지 못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단계로 서술된 부분이다. 특별하게 패전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이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기록에 한정하는 한 예하부대의 장군이 특수한 상황에 처하면 독자적인 판단하에 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하부대의 장군에게 임기응변의 독자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夏五月初 諸將之東下也 帝戒之曰 凡軍事進止 皆須奏聞待報 無得專擅 遼東數出戰 不利 乃嬰城固守 帝命諸軍攻之 又勅諸將高句麗若降 則宜撫納 不得縱兵 遼東城將陷 城中人輒言請降 諸將奉旨 不敢赴期 先令馳奏 比報至 城中守禦亦備 隨出拒戰 如此再三 帝終不悟 既而城久不下 (『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5월)

이라 하여 전투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지휘관의 결단을 요구하는 동안 적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게 되어 오히려 전투에 역효과를 내게 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로 보아 대장군 휘하의 예하부대 장군들에게는 전투시 나름의 독자적인 부대운용 권한이 주어졌을 사료로 이해하고 싶다. 석문전투의 경우 장군들의 독자적인 부대운용은 때로는 병력을 분산시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던 총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지휘관급 장군들도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총지휘관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적을 공격하기 앞서 군영을 차리고 있었을 때 적과 아군을 구분해줄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공격이나 방어진에 설치한 군영 출입시 서로를 전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검문·검색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649년 석토 등 7성 전투에서 도살성 아래에서 재집결한 김유신군이

今日必有百濟人來謀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 援軍至(『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백제인 첩자 침투를 예견하고 誰何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誰何가 바로 검문이다.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약속에는 비표, 암구호, 공인신분증 등 다양한 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부대가 행군할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612년 수의 군 출동시에 보이는

日遣一軍 相去四十里 連營漸進 終四十日發乃盡 首尾相繼 鼓角相聞 旌旗亘九百六十里(『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1월)

부대간의 거리가 40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鼓角이 서로 들릴 수 있게끔 수미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행군시 부대와 부대 사이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군끼리는 미리 연락방법을 정하여 어떻게든 지휘계통을 확립할

수 있었지만, 나당연합군처럼 연합군의 경우 서로간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해줄 때, 군량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연합작전의 의도를 묻는 연락병을 파견하자.

庾信先遣 然起·兵川等二人 問其會期 唐帥蘇定方 紙畫鸞犢二物迴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 元曉法師 解之曰 速還其兵 謂畫犢畫鸞 二切也 於是庾信迴軍 (삼국유사 1 태종춘추공)

난새와 송아지를 그려 보냈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설화적 형태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지만, 글로 표현하면 만약의 경우 적에게 군사작전을 알려주는 염려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글이나 그림으로 연합군끼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실제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수행되었을까를 살펴보자.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과 명령하달과정을 다음 사례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金鼓旗麾總讚 금고기휘총찬
 兩軍相接(양군상접) 양군이 어울려 싸우면
 煙塵漲天(연진창천) 먼지가 하늘을 가린다.
 呼吸之間(호흡지간) 숨 한번 쉬는 사이에
 機變倍天(기변배천) 수없는 변화가 생긴다.
 左右進退(좌우진퇴)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紛紛紜紜(분분운운) 눈코 뜰 새 없다.
 令之莫及(영지막급) 호령도 통하지 않고
 吶之莫聞(규지막문) 고함도 들리지 않는다.
 毫釐或差(호리혹차) 털끝만큼만 틀려도
 千里是違(천리시위) 천리의 차이가 난다.
 何以整之(하이정지) 무엇으로 정돈 하는가
 金鼓旗麾(금고기휘) 금고와 기휘로다.

進之以鼓(진지이고) 나아갈 때는 고를 울리고
 退之以金(퇴지이금) 물러설 때는 금을 친다.
 麾之角譬(휘지각경) 휘로서 지시하고 각으로 경고하여
 萬夫一心(만부일심)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은다.
 善陣不戰(선진부전) 진을 잘 치면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善敗不亡(선패불망) 계획성 있게 패하면 망하지 않는다.
 陣無常形(진무상형) 진은 일정한 모양이 없으니
 後賢詳之(후현상지) 뒷 사람은 자세히 살필지이다.

이 사료는 조선초기 정도전의 삼봉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시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대의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인용하였다.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달려드는 적을 제압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때 명령을 받아드릴 경황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달해야만 하는 지휘관은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큰소리를 내는 기구라 할지라도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소리라면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평상시 거둬둔 훈련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리야야 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고기휘가 전투시 명령하달에 사용되었다. 고는 북소리이다. 북소리는 사람에게 전투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당연 전투의 시작과 전진을 알리는 신호이다. 금은 징소리이다. 날카로운 징소리는 거의 정지와 후퇴명령에 사용되었다. 북소리를 군대가 전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황산벌전투에서

品日執其首 流血濕袂 曰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幸矣 三軍見之 慷慨有死志
 鼓噪進擊 百濟衆大敗 堦伯死之(『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7년 7월 9일)

품일이 그의 아들 관창의 목을 들어보이면서 군대를 격려하자 신라군이 鼓噪進擊했다는 것이다. 징소리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국측의 사례를 살펴보면

陵至浚稽山 與單于相直 騎可三萬圍陵軍 軍居兩山間 以大車爲營 陵引士出營 外爲陳 前行持戟盾 後行持弓弩 令曰 聞鼓聲而縱 聞金聲而止 (漢書 54 李陵)

漢書에서 李陵이 계곡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있을 상황에서 북소리에 공격하고 징소리에 멈추라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투에서 규칙으로 어떤 기구의 소리를 가지고 공격과 후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예를 보자.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여러 장수(將帥)를 불러서 타위법(打圍法)을 강(講)하게 하였다. 그 법(法)에 이르기를, “타위(打圍)할 때 호랑이·스라소니·돼지·시슴 등을 보고 여러 위(衛)에서 다투어 잡다가, 만약 황룡기(黃龍旗)·교룡기(交龍旗)를 세우면, 본소(本所)로 돌아가고, 초요기(招搖旗)를 세우면 장수(將帥)가 와서 교룡기(交龍旗) 아래에 서는데, 여러 장수(將帥)가 모두 온다.”하고 또 여러 장수에 명하여 휘하(麾下)에 3인을 거느리고 뜰에 나누어 주둔(駐屯)하여, 혹은 징[金]소리에 나아가고 북[鼓]소리에 물러가기도 하고, 혹은 북소리에 나아가고 징소리에 물러가면서 변율(變律)의 법(法)을 익히게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세조 43권, 13년 8월 5일(무술))

북소리와 징소리의 변율법을 익히게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러하다. 각각의 전투에서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다.

지휘관은 어느 곳에서 전투를 지휘했을까. 사방을 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전투장소보다는 약간 높은 지형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는

其後帝自將步騎四千 挾鼓角偃旗幟登山 帝勅諸軍 聞鼓角齊出奮擊(『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으로 당 태종이 산에서 旗幟와 鼓角으로 지휘를 하여 고혜진과 고연수의

15만 대군을 무릎꿇었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깃발을 휘날려 진형을 변형시켰으며, 고각을 통하여 군대의 진퇴를 지휘하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사료상에 드러나는 7세기 전투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복원 가능한 행군속도와 전투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상과 전투시 지휘와 연락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7세기 전투시 행군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황산벌전투와 김유신이 당군에게 식량을 수송하기 위한 평양성 수송작전 사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략 하루 30여리 정도의 이동속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군대의 행군속도를 일률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행군에 어려운 지형을 만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동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살수에서 패배한 수군이 만 하루만에 450리를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30여리의 행군속도는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대형을 갖추고 치중부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을 상황에 해당된다.

전투의 유형을 크게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곽전을 대비한 본진은 일반적으로 대략 목표지점 30~40여리 전방에 설치되었다. 성곽전투시 공자와 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 양측은 적군의 사기를 죽이기 위하여 기싸움을 벌였다. 기싸움 이후에는 성벽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자를 메웠다. 이어 포차와 충차공격을 하였으며, 화공 또는 충제와 어랑대도를 이용한 공격이 행해졌다. 이렇게 성벽을 확보하면 최후로 백병전이 벌어지고 성곽에 깃발을 꽂아 전투가 끝났음을 상징화시켰다.

지상전을 치루기 위해서도 먼저 본영이 설치되었다. 본영에는 각 체대별로 독립된 소영을 설치하였다. 각각의 영에는 누와 갯을 설치하여 적군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소영을 지휘하는 지휘소와 본영을 지휘하는 총지휘소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승패를 결정지었던 지상전은 군대의 사기와 지형, 병력운용과 진법이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장으로 나아가는 총지휘관에게는 국왕으로부터 한정된 편의종사권이 부여되었다. 총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지휘관급 장군들도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총지휘관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지휘를 위한 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문·검색을 위한 일정한 약속이 있었으며, 행군시에도 고각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지휘·연락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면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호령과 고태미 들리지 않는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지휘할 수 있었을까. 금고기휘가 그 해답이었다. 일반적으로 북소리에 진격하고 징소리에 퇴각하고 깃발로 진형을 변형시켰다.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행군속도, 전투유형, 성곽전, 지상전, 지휘체계, 편의종사권, 연락체계, 금고기휘

<ABSTRACT>

The Exploration of Ancient Battles in the 7th Century in the Three Kingdoms

Kim, Joo-sung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various patterns of battles and commanding as well as communication systems that becam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arching speed and types of actions employed in the 7th century warfare in an attempt to revive them in compliance with the available historical recor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rching speed in the 7th century warfare, a survey was made into the materials showing the transportation strategies in the Hwangsanbeol Battle and in the Pyeongyang Castle to which Kim, Yushin tried to deliver food for the soldiers from Tang Dynasty, China. Judging from the geographical conditions, it might be possible to presume that the soldiers moved approximately 30 ri or 12 km a day, although no general rule could be applied to the marching speed of soldiers because it could differ should there be rugged mountain range difficult or impossible to crossover. In an extreme case, for example, the Naval Forces defeated at Salsu River moved even as far as 450 ri in just a day. The marching speed of about 30 ri a day can be normally attained under the assumed situation in which a military unit moves in a battle formation preparing for any attack from the enemy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upply unit.

The types of battle were divided into the castle and ground warfare for examination here. The commanding post was usually positioned about 30~40 ri in advance apart from the target in preparation for castle

warfare. Water and food were crucial for both attacking as well as defending sides in the castle warfare. Before start of warfare, both parties were usually engaged in a pre-stage of spirit war to dishearten the enemy soldiers. After the spirit war is over, the attacking force began to fill up the moat to ease approach to the castle. Thereupon, attack started by means of gun carriages, pushing vehicles, fire and mounts of clay bags. Once a castle was occupied by the attacks, fighting with swords and bayonets raged in the final stage of the warfare, with the winner hoisting the flag on the castle to declare sign of its victory.

For the ground warfare, a commanding camp too was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and independent unit of lesser scale was affiliated with it for each echelon. Each camp was protected by a tower with lookout and a pit to keep away the enemy. There must have been the chief commanding post to take command of small camps. The moral of soldiers, ground condition and strategies to operate military force and battle array might be a key to decision of victory or defeat in the ground warfare that did not take long to its closure.

The commanding chief of staff who was about to go to the battle field was given by the king a limited free hand to exercise subject to situation. It might also be assumed that the commanding chief delegated some portion of his authority to the commanders under his control to enable them to operate their units respectively. There were certain agreements for check-up and search to ensur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ommanding post and commanded units. During a march, there was a rule to maintain certain distance between units to allow supervision and liaison without a hitch. How could it be possible to direct military units in actual battle where dust clouds shut the sky and orders were overshadowed by yells and shouts? The answer is drum and flag; that is, soldiers marched forward at the sound of drum, retreated at the sound of gong and changed their echelon formation by signal of flag.

Key Words : The Marching Speed, the Types of Battle, the Castle Warfare, the Ground Warfare, the Commanding System, a Limited Free Hand to Exercise Subject to Situation, the Liaison System, Drum and Flag